

- 과학기술발전과 영재 교육 -

英才교육으로 과학살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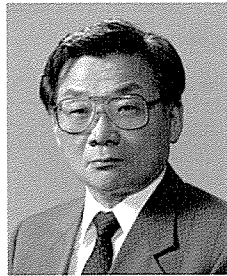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대단히 낙후되고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없이 경제부흥이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려면 영재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 올림픽대회를 위해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 태릉선수촌에서 국가차원의 지원하에 선수를 양성하는 것처럼 과학특기자도 엄정히 선발하여 좋은 시설과 우수한 교수들 밑에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과학기술계 인사 전문성 시급

■ 과학기술의 위상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들에 비해 대단히 낙후되고, 열악한 형편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GNP대비 연구개발비의 지출 실적으로 보나, 국가예산상 이 방면의 편성비율로 보나,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져있으며, 따라서 절대액으로 따지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행정부나 정치인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크게 외치면서 실천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나 경제논리에 의해서 저 뒷전에 밀려나 있기 일췌이며, 이런 상황이 쉽게 고쳐지기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된 국제수지의 엄청난 적자는 근본적으로 그동안 과학기술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이며, 저임금시대가 지나버린 우리나라가 국제경쟁에 이기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획기적 과학기술 발전으로, 품질좋은 세계 일류제품의 생산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문에 적극적인 투자없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위상은 이런 현실적인 절박감과 동떨어지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치권의 동향만 해도 국회의원의 직능적 배려를 해야 할 전국구 의원 배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과학기술계 인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구호와는 달리 예산배정에서도 별 신통한 역할



李源國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을 하는 것 같지 않다. 정부에서도 경제살리기가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 과학기술 투자, 특히 정부에서의 투자는 바로 투자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탈피해야 하며, 국가의 10년 또는 50년 앞을 내다본, 기업체에서는 당장 수익성이 없어 착수못하나 앞으로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에 적극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 예산에 의해

서 운영되는 정부투자 연구기관에 대해 너무 단기적인 투자효과에 급급하여 그 성과로 조급한 열매를 기대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출연연구기관의 투자는 다목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지, 단기적인 경제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학기술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 없을진데, 최근의 인사행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어떻게 과기처 장관을 경제계 인사나 언론계 인사로 임명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어떤 사람은 장관이야 누가 맡든 어떠냐, 정책방향만 잘 잡아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러면 재경원 장관도 같은 논리로 비전문적인 인사를 임명하면서 그런 말로써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이 말은 과학기술계의 전문성을 너무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이와 동시에 한정된 우리나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나는 영재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고, 또 국가 장래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주장하고 싶다.

과학특기자 국가차원 양성을

■ 영재교육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는 백여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어 양적으로는 선진국 어느 곳에도 못지 않은 실정에 있다. 그러나 그중에 국제적으로 내놓을 만한 곳은 거의 없다.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 포항공대 등이 국내에서는 그런대로 명성을 얻고 있지만 국제수준에는 아직 요원하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현재 명성을 얻고 있는 우수한 몇 학교를 골라 영재교육기관으로 집중 투자하여, 하루 빨리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철저히 교육받은 졸업생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선도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 국가는 가능한 모든 특혜와 예산을 배정하여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말을 하면 혹자는 우리나라의 많은 교육기관이 자유경쟁에 의해서 각자 나름대로 좋은 교육을 시켜야지 그런 특수 교육기관을 만들거나 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것이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올림픽대회를 위해 태릉선수촌에 우수한 체육특기자를 수용하여 국가적인 지원하에 좋은 시설과 관리를 통하여 기록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신기할 정도이다. 체육특기자가 기록향상을 이루어 국가의 이름으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시민들이 다만 일시적인 대리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 국가 경제나 선진국 진입 등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비하면 우수한 인재를, 특히 과학특기자를 엄정히 선발하여 한 곳에 모아놓고, 좋은 시설과 우수한 교수들 밑에서 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은 그 첨단을 걷는 소수 우수인재의 발상과 개발이 도화선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우수한 두뇌의 특수인재를 엄중히

선발하여 이를 잘 교육시켰을 때 이들에게서 기대되는 것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엄정한 학생선발 기준과 또 교수들의 업적평가에 의한 공정한 채용이나 탈락의 기준이 있어,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균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현재 그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기득권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영재교육만이 선진국 앞당겨

■ 영재교육제도 - 우리나라에도 영재교육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과학고등학교, 과학기술대학과 과학기술원 등이 이런 목적 아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설립당시의 의욕과는 달리 일반교육기관과의 평준화정책에 밀려 특수기관이란 입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또 이런 퇴색에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을 자유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점차 삭감해 가고 있음으로 인해, 특수학교로서의 특혜들이 없어지고 있으므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질의 저하를 가져왔고,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무관심과 타 대학의 질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더욱더 보완하여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취지에 맞는 각종 특혜를 되살려 좋은 학생이 몰리게 하고, 국가 예산의 획기적인 배정으로 이들을 세계 정상수준의 시설과 교수진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과학 고급두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학고등학교도 획기적인 개편을 하여 실험위주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의 교과편성과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잘 교육되어 다음 단계의 영재교육기관으로 별 무리없이 진학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현재 이런 기관에 있는 교원들만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들이 우수한 교원들로 수시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제도를 잘 운영하고 국가적, 국민적 관심과 지원하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영재교육기관이 번창할 때 우리나라의 앞날이 양양할 것이며,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①7